

“배병우도 성추행”... 문화계 ‘미투’ 확산

순천시 ‘배병우 스튜디오’ 폐쇄

이운택·오태석 연극 교과서 배제

해당 인물 소속 단체들 징계 돌입

문화계와 연예계 등 각계로 미투(metoo)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로 지목된 이들이 사과와 뜻을 표하거나 이들이 속한 문화단체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등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시는 사진작가인 배병우(68)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문화의 거리에 있는 배병우 창작스튜디오를 폐쇄했다고 24일 밝혔다.

순천시는 먼저 창작스튜디오 간판을 철거하고, 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작품도 빠른 시일 내 철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병우 창작스튜디오는 지난 2016년 도시재생 활성화를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에 조성됐다.

배 작가는 서울예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배씨 측은 “너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배 작가는 한국의 소나무와 고궁 등을 주제로 개성적인 작업을 해왔으며 특히 영국 팝가수 엘튼 존을 비롯한 해외 저명 컬렉터들의 눈에 띄면서 유명해졌다.

성폭력 논란이 제기된 연극 연출가 이운택과 오태석의 작품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연극 교과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 1학기부터 ‘연극’ 과목이 고등학교 보통교과와 일반선택 과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극의 이해’, ‘연기’, ‘연극 감상과 비평’ 3과목 교과서가 배포된 상태다.

교육당국은 이들의 작품이 수록된 연극 교과서가 이미 배포까지 마친 상황이라 올해 당장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내년 사용할 교과서는 문제의 작가들과 작품들을 삭제한 개정판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필진들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제 인물들과 그들이 주도한 작품들이 교과서에 실려 배포까지 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집필자들로서는 끼는 절망과 우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집필진들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제 인물들과 그들이 주도한 작품들이 교과서에 실려 배포까지 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집필자들로서는 끼는 절망과 우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순천시에 자리한 ‘배병우 창작스튜디오’ 입구에 폐쇄 안내문이 나붙은 모습.



배병우 고은 조재현

지원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달리 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는 극단 목화의 페투 리마 공연예술축제 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경은 일방적 지원 취소 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오태석 비동행 조건으로 그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작가회의(작가회)는 3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해, 미투 운동속에서 거론된 고은, 이운택 회원의 징계안을 상정 및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작가회의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평화 인권위원회”에 ‘성폭력피해자보호대책팀(가칭)’을 상설기구로 두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작가회의의 징계안 상정 처리 소식을 접한 고은 시인은 현재 맡고 있는 작가회의 상임고문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탈퇴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작가회의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남성문화권력에 대한 준엄한 자기비판과 냉엄한 비판적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며 “보다 예민한 속수와 윤리를 통해 젠더 문제와 관련한 문학 안팎의 쟁점들을 기민하게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투 운동과 관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입장을 발표한 이들도 있다.

뮤지컬 ‘명성황후’를 제작한 ‘뮤지컬계 대부’로 불려진 윤호진 에이콤 대표는 24일 자신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그는 28일로 예정됐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그린 ‘웬즈데이’ 제작 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윤 대표는 “할머니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저의 개인적인 의욕으로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배우 조재현도 2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전 잘못 살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하며 동료, 스태프,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습니다”라며 “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일 시적으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

독일문화 속속 들여다보기

전남대박물관 강좌 수강생 모집

문화와 예술 영역에서 ‘도이치’라는 말은 하나의 대명사나 다름없다. 물론 40년간의 분단으로 동·서독의 문화생활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독일의 문화와 예술은 같은 뿌리였던 탓에 정치적, 지리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동질적 양상을 유지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전남대학교(총장 정병석) 박물관이 2018학년도 1학기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문화강좌는 ‘문화의 침략, 독일과의 조우(遭遇)’를 주제로 오는 3월14일부터 5월30일까지 12주 동안 진행된다. 역사·철학·문학·음악·미술·법학·경제·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독일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내달 14일에는 최영태(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독일 역사의 흐름을 읽다’를 주제로 영화 ‘굿바이 레인’과 연계해 시민을 만난다. 21일에는 박준철 한성대 교수가 영화 ‘투터’를 매개로 ‘중세와 근대의 교차로에서’를 강의하며, 28일에는 이재진(전남대 독일어문학과) 교수가 영화 ‘작전명 발키리’를 토대로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극복’을 이야기한다.

이어 4월 4일과 11일에는 테너 장진규 교수와 장일범 음악평론가가 각각 ‘독일음악의 역사-독일 가곡과 오페라’, ‘독일 음악의 울림을 느끼

다’를 강연한다.

18일 김양현(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영화 ‘트루먼 쇼’를 배경으로 ‘에피소드로 엮보는 독일 철학자들의 뒤안길’을 이야기하며 김재혁(고대 독문과) 교수는 25일 영화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를 토대로 ‘독일 서정시의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5월 9일에는 하태훈(고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법의 근원을 찾아서, 독일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16일과 23일은 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와 이현대(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독일 미술, 그 진지한 몸짓’, ‘독일 경제의 역사적 교훈’을 강의한다. 함께 시청할 영화는 ‘파올라’, ‘소피 숲의 마지막 날들’.

마지막 강좌(30일)는 이민석(전남대 건축학부) 교수가 ‘독일 건축을 살아올리다’를 주제로 다뤄 ‘독일 남부의 고성가도를 따라서’를 연계해 강의를 한다.

한편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며 2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접수는 수강료 계좌입금(수강생 명의로 입금)을 통해서만 이뤄지며 수강료는 일반 11만원, 전남대 교직원 및 가족·대학생·경로(만 65세 이상)는 9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museum.chonnam.ac.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530-358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UCC 구경하세요

온라인 서포터즈 16명 발표회

(재)광주비엔날레가 주최하는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 UCC 발표회가 최근 재단 3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16명의 제 3기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는 2018광주비엔날레 주제인 ‘상상된 경계들’을 온라인 상으로 흥미롭게 알릴 수 있는 UCC를 2달 간 제작했으며 그 결과물을 발표회에서 선보였다. ‘상상된 경계들’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풀어낸 1~2분 분량의 영상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감상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



(재)광주비엔날레는 최근 온라인 서포터즈 UCC 발표회를 열고 결과물을 선보였다. <광주비엔날레 제공>

광주성공회센터 ‘청노루글쓰기교실’ 운영

다음달 5일까지 여성 수강생 모집

광주성공회센터는 지역 여성을 위한 ‘청노루 글쓰기교실’을 운영한다.

다음달 5일부터 6월 18일까지 4개월 간 매주 월요일(오후 7시~9시) 남구 월산동 광주성공회문화센터(화성회관 건물 3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글쓰기에 관심 있거나, 자신의 일상을 글로 담고 싶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사는 희곡작가인 김영학 조선대 교수다. 김



김영학 교수

교수는 이번 글쓰기교실에서 문장 및 단락 쓰기, 묘사 및 서사 쓰기, 일상을 기록하는 법, 에세이 쓰는 법, 글 쓰기 치료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강의를 희망하는 수강생은 내달 5일까지 다음 카페 ‘청노루글쓰기’ 공지사항에 댓글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수강료 무료. 선착순 30명. 문의 010-5642-9263. /*박성천기자 skypark@

2016 IDFA 암스테르담국제영화제
2017 영국 세필드국제다큐영화제
2017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들리나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하모니

바니니송의
기적
Singing with Angry Bird

2018.03 대개봉

김재창×바니니 합창단 감독 송우용 지혜원 제작 바른미디어 배급 (주)영화사 그림 | CBS

다음 카카오 스토리펀딩을 통해 현지 영화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바니니송의 기적>을 아직 보지 못한 단원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기적을 선물해주세요.
※펀딩 참여방법 ▶ 검색창에 바니니송의 기적 스토리펀딩 을 검색해보세요! <https://storyfunding.kakao.com>